

LIGHT & ART

작품전시회

LIGHT & ART 작품전시회가 지난 1월 12일부터 25일까지(14일간) 광주 신세계 백화점에서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 광주디자인센터장 및 작가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광주의 빛'이라는 주제로 지역작가 10인의 회화, 입체, 미디어, 설치 등 LED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 전시회는 광주 '빛-예술 연구회'가 주최하였으며, LED 기술지원은 라이텍코리아(주), (주)이노셈코리아, (주)에포크산업, (주)오픈테크놀로지 4개사가 지원하였다.

빛-예술 연구회는 지난해 한국 산업단지공단과 광주디자인센터의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선대학교 제품디자인학과와 함께 LED 제품을 디자인하고, 광아트 상품을 개발하는 등 LED를 활용한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왔다.

LED는 광주광역시의 5대 신기술 응용사업의 하나이기도 하며, 지금 세계 각국에서 LED융합으로 신기술 범위가 확대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동반하면서 성장속도에 가속이 붙은 분야이다.

전시회 주요내용은 LED와 ART의 융합기술이며,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각종 융복합 신기술 확대 사업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다.

작가들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조각을 전공한 작가 김상욱과 김숙빈씨는 기존 작품의 형상에 LED를 접목시켜 형형색색의 빛을 발하는 조각 작품을 만들었으며, 김진화 작가는 풍부한 상상력의 입체작품에 주력하여 마음속에 그리는 상상의 세계를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로 연출하였다.

또 회화 작업을 주로 하는 정선휘 작가의 작품에서는 LED가 작품과 반응하면서 작품의 색채가 변화돼 하나의 회화에서 다양한 색채가 표현되었다.

최근 미디어파사드(LED를 활용해 건물 외벽을 대형 스크린처럼 꾸미는 것) 작업으로 새로운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진시영 작가는 광주 테크노파크 과학기술협력센터 외벽에 설치한 미디어파사드 모형을 보여주는 등, 빛과 예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를 선보였다.

금번 전시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탄생시킨 광융복합 발전단계의 시발점이며, 향후 LED 뿐만 아니라 광통신·광소재·광정밀 등 더 많은 광산업체와 예술작가들의 참여로 융복합 발전 및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화로 연계, 국내에서 더 나은 광응용 융복합 신제품 개발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 한국광산업진흥회 -

〈빛과 공간, 정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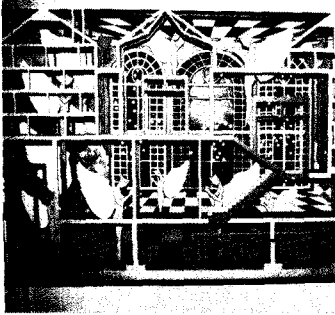
작품의도 : 색채와 볼륨감의 결합을 통한 효과와 보여진 것에 감춰진 허상에 관한 착시 현상을 나타냄.





〈빛의 천사, 김진화〉

작품의도 : 마음의 빛을 통해 보여주는 상상을 위한 심리학적 해석을 환경의 공간속에 연출하여 빛(LED)을 통해 삶의 희망과 환상을 전달하는 것



〈등대, 김숙빈〉

작품의도 : 환경의 보고인 반딧불이 마지막 생명을 다하며, 지구환경위기의 메시지를 간절하게 빛을 발하며 보내고 있다.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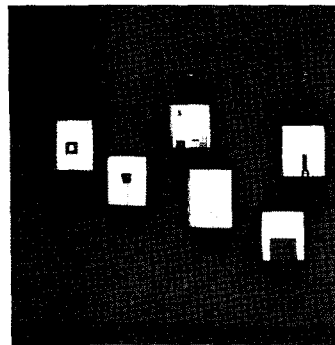
〈미디어파사드, 진시영〉

작품의도 : 광주 광산업의 메카인 첨단산업단지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의 과학기술 교류협력센터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광주시를 대표할만한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광(LED)를 이용한 새로운 시도로서 조선대학교와 오픈테크놀러지의 기술이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빛이 건축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도시를 꿈꾸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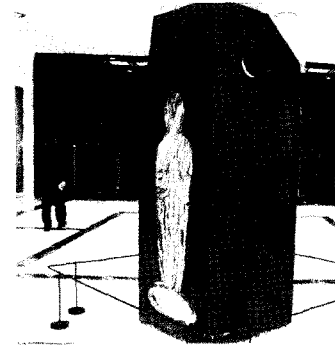
〈우제, 윤익〉

작품의도 : 일상에서 잠시나마 멀어져 찬란한 빛과 자연의 형상에서 빌려온 형상, 그리고 자유로운 바람으로 연출된 이번 작품은 우리 삶의 시간적 메타포이다. 새장 형상은 도심과 자연의 일상적 삶의 공간을 표현하며, 내부의 나뭇가지형상과 빛은 우리의 존재하는 생명적 대상들의 내적이며 외적인 삶의 현상 표현



〈기원, 김상욱〉

작품의도 : 우리는 실속에서 꿈이나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자신 또는 집이 처해 있는 환경속에서 특정 대상이 아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의식도 필요치 않으며, 그저 간절한 바람을 담아 기도를 통해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길 염원



〈공간을 꿈꾸다, 위재환〉

작품의도 : 어느날 달콤한 낮잠을 자며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생선을 보았다. 그 표현을 조각과 설치미술을 통해 표현하였고, 항상 작업에 있어 특정 공간의 특성을 배제한 채 내 스스로 어느 공간이든 그림을 그린다. 폭신폭신한 따뜻한 나의 작업 표현을 살아 있지 않은 무형의 물체에 삽입함으로써 나타나는 공간의 부작용



〈의자, 위재환〉

작품의도 : 권력의 상징일 수도 있고 존경의 대상일 수도 있으며 나 자신의 안식처이거나 추억이 될 수 있는 의자를 조형적 표현기법에 미디어 아트를 LED를 이용해 나타낸 작품이다. 겨울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다양한 소재를 미디어 영상에 담아 표현한 환경미술에 시발점 역할을 기점으로 대중과의 편안한 접근성을 유도할 수 있는 소재로 남기를...